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8. 2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력 모자라는데... 여름도 겨울도 문열고 장사
(‘18.2.1.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전력이 모자라는데 산자부는 개문난방 단속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
 - 올겨울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요청하는 ‘급전지시’를 여덟 차례 내렸음
 - “일부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‘전력대란’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”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
- 명동, 강남 상가 등은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상점이 많음
 - ‘개문난방’은 단속 대상이지만 실제 단속 빈도는 낮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① 전력이 모자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올 겨울은 이상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예비력이 위기경보 기준(500만kW)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매우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있음

* 올겨울 최저 예비력 : 1,096만kW(‘17.12.12일) → 당일 공급예비율 12.9%

- 올 겨울 전력 수요감축요청은 안정적인 수급여건에도 최대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시행한 것임. 따라서 전력이 모자라서 수요감축을

요청한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

* < 수요감축요청 발령요건 >

- ①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·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
- 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,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
- ③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

② 일부 발전소 고장시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음

- 2.1일 현재 전력예비력을 15GW이상 확보하고 있으며, 이는 1GW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용량임
- 또한,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자원 7GW 수준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

<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기준 >

구분	준비	관심	주의	경계	심각
예비력	4~5GW	3~4GW	2~3GW	1~2GW	1GW 미만

③ 현재 ‘개문난방’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, 캠페인 중심으로 계도 중

- ‘개문난방 금지’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①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, ②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*

*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(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 제2항

◇ 2011.9월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차질 우려로 ‘12~’14년 동절기에 한시적 시행, ‘15년 이후 개문난방 단속을 시행한 적은 없음

- 최근 이상 한파로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, 매우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상황은 아님

○ 한편, 개문난방 자체 계도는 전국 18개(2,300여개 상가)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('17.12.28~'18.2.22)

－ 기존에 비해 상권은 4개*('14→18) , 상가는 300개(2,000→2,300) 확대

* 서울 홍익대 인근, 부산 남포동 인근, 대구 동성로 인근, 경기 수원역 일대

－ 미준수 상점을 방문, 계도/절전요령 안내 등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

④ 해당 기사에 사용중인 '급전지시' 용어는 '수요감축 요청'으로 이미 변경되었음. 따라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

전력수급 관련 (①, ②, ④)	전력산업과	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 임기홍사무관(044-203-5254)
개문난방 관련 (③)	에너지신산업정책과	이경호 과장(044-203-5360) 박재형 사무관(044-203-5362)